

## 서울특별시

### 닭·돼지 기름으로 연료 만든다

강동구가 폐식용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에 이어 동물성 기름까지 바이오 디젤로 재활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강동구는 지난 11월 22일 구청에서 동물성 유지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인 (주)S.M.POT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동물성 기름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구는 음식점이나 가정 등에서 모은 동물성 기름을 이 업체에 보내 바이오 디젤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이 업체는 이러한 자원 순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덕·천동초교, 한산·신암중, 강일고 등 5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구와 주민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부담을, 업체는 원료 구입비용을, 학생들은 급식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앞서 구는 2006년 전국 최초로 각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구가 운영하는 청소차량과 행정차량 등에 바이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 3천만원가량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고덕동 자원순환센터에 '바이오 디젤 전용주유소'를 운영하고, 4월엔 암사동에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험농장'을 개장해 유채와 해바라기 씨앗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 사업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 행

정'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들어내는 친환경 연료이다. 경유에 비해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78%까지 낮출 수 있다.

### AI 사전차단 위한 특별방역대책 가동

서울시가 AI 주요 전파요인으로 추정되는 철새들의 한반도 집중 서식철인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 동안 강도 높은 '동절기 도심 속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관리되는 대상은 AI 발생가능성이 있는 닭·오리·거위·칠면조·평등의 가금류와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다.

서울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인접한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으며, AI 또한 2008년 이후 국내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가까운 11개의 사육농가와 6개국 야생동물에서 관찰되고 있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사육시설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사육주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AI·구제역 예방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육주에게 예방요령 리플렛 1,000부를 배포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사육농가에 대해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해 농가중심의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한편 외곽 농촌지역 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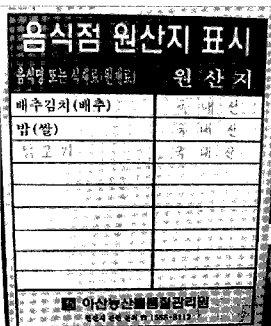
농가는 각 자치구 보건소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8개팀 소독지원반이 방역차량을 이용해 주 1회 소독작업을 지원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된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올해 8월 11일부터는 그동안 100㎡ 이상인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 등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 충청남도

### 아산품관원, 음식점에 원산지표시판 배부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게시판) 1,000개를 제작해 아산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을 활용해 지난 11월 18일부터 배부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판은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계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부하게 됐다.

황인석 소장은 “음식점에서는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며 음식점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이상 일반음식점의 쇠고기 구이용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 가축 전수조사 실시

충남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도내 가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4종과 ▲마필,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 지렁이 등 기타 가축 17종 등 총 21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축사육 농가방문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수 ▲가축의 성별·연령별 마릿수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축통계조사 결과는 향후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충청북도

###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충청북도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철새의 이동 시기에 맞추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20개 기관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금과 야생조류에 대해 집중예찰을 골자로 하는 기관별 중점방역 대책을 시달하고,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갖춘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군별 축사환경개선사업, 생균제 공급 및 전염병예방백신 등을 조속히 완료해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고, 재래시장·철새도래지·오리 및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 등 취약지역을 중점 예찰하며, 공동소독을 병행한다.

또한 도내 220개 공동방제단과 공수의사 등 198명의 가족 전염병 예찰요원이 주간단위로 농장 방문 또는 전화예찰을 펼치며, 축산위생연구소에는 '긴급 현지조사반'을 충북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초동방역반'을 설치했다.

아울러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소독효과를 높이는 한편, 외국인 고용농장과 해외여행 축산 농가, 도축장 등 축산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서는 금년 들어 1만여건의 가금류 및 야생조수에 대해 상시예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순회교육과 도·시군 간 시 가상훈련을 통해 긴급행동지침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충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차 시 발생 청정지역을 이어가기 위해 축주 자신이 스스로 예찰요원이 돼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농장 출입자·차량·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답사나 시 발생국 여행 등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

### 헛개나무로 기능성 닭사료 개발



군위군이 지난 4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한 '헛개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닭사료 개발'에 성공했다.

군위군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헛개나무의 기능성에 착안해 부산물(잎, 줄기, 열매)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해 헛개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증진과 닭고기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헛개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개발은 군위에서 15년간 약용작물을 연구·재배해 온 김상헌 한국약용작물원 원장 제안으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와 한국약용작물원이 합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헛개나무는 야산 및 유희지 등에서 잘 자라고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면역력과 간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닭을 통한 일반사료에 헛개나무를 분말로 만들어 첨가해 폐사율, 증체량, 식미

및 면역증진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헛개나무 분말 첨가사료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닭의 폐사율이 줄고 증체율은 증가하여 면역력 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헌 원장은 “헛개나무 분말사료의 면역력 증진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닭 사육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역희망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헛개닭 체인점 개설 등 농가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태 LS엠트론 상무와 이문용 하림 대표이사, 홍철호 플러스원 대표이사 등 기업체 관계자와 김생기 시장 등 관련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체는 내년까지 총 1,1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30여명의 신규 인력 고용 창출이 뒤따를 전망이다.

대한민국 식품산업 대표기업이자 닭가공업체인 하림은 3산단에 450억원, 신태인농공단지에 150억원 등 내년 3월까지 총 600억원을 투자 5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08년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한 닭고기 가공업체인 플러스원도 70억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고 4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기로 했다.

### 전라북도

정읍시, 3개 기업 1,100억원 투자협약 체결



전북 정읍시가 지난 11월 15일 일시에 중견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는 이날 LS엠트론(대표이사 구자열)과 하림(대표 김홍국) 및 플러스원(대표 홍철호)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식을 갖고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

### 광주·전남

닭 사육마리수 증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육우와 닭은 사육 마릿수가 많이 증가한 반면 젃소와 돼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 지역(2005~2009년) 가축사육 동향”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남이 43만9천 마리로 2005년 12월과 비교해 60.1%(16만5천마리), 광주가 6천 마리로 53.5%(2천마리) 각각 증가했다.

한·육우는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국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따른 소 가격 상

승, 2008년 광우병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량 감소, 사료가격 안정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육 가구 수는 전남 3만4천가구, 광주 292가구로 2005년 12월과 비교해 각각 2.8%와 24.4% 감소했다.

또 닭 사육마리 수는 전남에서 1천400만2천마리로 2006년 12월보다 3.1%(42만5천마리), 광주에서 9만3천마리로 181.8%(6만마리) 각각 증가했다.

닭 사육은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대체축산물로 2007년까지 증가하다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로 감소했지만 2009년 육계와 계란의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돼지 사육은 전남에서 83만마리, 광주에서 7천마리로 2005년 12월과 비교해 각각 3.2%(2만8천마리), 18.4%(1천500마리) 감소했다.

또 200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젓소도 전남에서 3만1천마리, 광주에서 605마리로 감소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열처리 닭고기 일본 수출 재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열처리된 제주산 닭고기 일본 수출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닭고기 일본 수출을 위해 한·일간 수입위생조건 협상 조기 재개를 농림수산물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1월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닭고기 도축가공업체가 열처리된 닭고기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훈제나 소시지, 꼬치류 등 닭고기를

가공해 수출하면 kg당 5,000원 하는 국내 판매가 보다 1,500원 많은 6,5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열처리 닭고기를 수출하면 국내 판매 수익보다 30%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농림수산물부와 지속적으로 닭고기 일본수출 재개를 지속 협의하는 동시에 열처리 닭고기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산 닭고기는 2006년 9월 2.2톤(1만617달러 상당), 2007년 10월 2.4톤(1만2140달러 상당) 등 2차례 냉동육으로 일본에 수출됐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입위생조건 미합의로 수출이 중단됐다.

## 2010년도 가축통계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가축 사육동향 분석 및 축산정책 수립을 위한 2010년도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28일 밝혔다.

도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12월 15일까지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과 마필, 양, 오리, 꿀벌 등 기타가축 32종에 대해 이뤄진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대책수립 및 축산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